

담양 에코하이테크 산단 분양 '활기'

최대 4억원 입지 보조금 등 '기업하기 좋은 곳' 입소문 바이오식품·자동차부품 등 유치...8월 말 63% 분양률

담양군의 에코하이테크 산업단지가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점차 활기를 찾고 있다.

29일 담양군에 따르면 담양읍 삼관리 일원에 조성된 에코하이테크 산단은 지난 2018년 완공 이후 96필지 33만7657㎡ 중 62필지 21만1841㎡가 분양돼 8월 말 현재 63%의 분양률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32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13개 업체는 공장을 건립 중이다.

또 최근 입주계약을 체결한 3개 업체가 공장 건축에 착수했고, 8개 사와 입주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군은 환경오염이 적은 바이오식품, 자동차 부품, 조립금속 등 18개 업종을 유치하고 있으며 토지 분양가의 30% 범위 내 최대 4억원의 입지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산단 분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법인세와 소득세 50%, 취득세 75%, 재산세 5년간 75% 감면 등 세제혜택과 함께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돼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이 가능한 점 등을 부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체면적의 40%를 공공시설 및 녹지공간으로 구성, 군민들의 주거환경권 확보와 산단 입주 업체들의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에도 매진하고 있다.

에코하이테크 산단은 특히 저렴한 분양가와 호남·남해·달빛·서해안 등 4개 고속도로, KTX, 무안공항 등 접근성도 뛰어나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기업체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담양-광주철도 간 국도 개통 이후 전남도립대학을 비롯한 광주과학기술원과 테크노파크 등이 15분대로 접근성이 확보되며 산학협력이 용이해 기업하기 좋은 곳



담양읍 삼관리 에코하이테크 산업단지 전경.

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산업용지가 모두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망기업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서영준 기자 xyj@



화순군,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박차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회...타 지자체 운영 실태 등 실효성 검토

화순군이 산모·신생아의 건강 증진과 출산·양육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화순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최형열 부군수와 각 실과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사진>

보고회는 화순군의 지역현황과 지역 특성분석을 통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 타당성과 타 지자체에 설립 또는 추진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실태를 바탕으로 실효성을 검토한 자리였다.

보고회는 ▲공공산후조리원의 기초 조사 및 분석 ▲화순군의 지표 분석을 통한 타당성 검토 ▲복지 수요와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등으로 진행됐다.

보고회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타당성조사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특수 목적법인 위·수탁 방법과 공공산후조리원 공모사업 등의 과제를 도출했다.

김인아 화순군 보건소장은 "출산복지 정책으로 앞서가는 화순군 이미지 구현과 출산 친화적 도농 복합도시 구축으로 모두가 행복한 명품도시 화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

화순군, '일회용품 없는 깨끗한 화순만들기' 캠페인

화순군이 추석을 앞두고 지난 28일 화순읍 고인돌전통시장에서 '일회용품 없는 깨끗한 화순만들기' 실천을 위한 민간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화순읍 중앙로상가회(회장 박철운),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여해 시장 상인과 주민 등을 대상으로 전개했다.

이들은 화순읍 중앙로상가회에서 준비한 장바구니를 시장을 찾은 군민들에게 나눠주며 캠페인을 펼쳐 호응을 얻었다.

한편 화순군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장바구니 사용을 생활화하는 '작은 실천'에 중점을 두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

장성군, 추석 맞이 우수 농특산물 공공구매 추진

장성군은 추석을 맞아 우수 농특산물 공공구매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다음 달 12일까지 진행되는 공공구매는 지역 공공기관과 지역 농특산물을 연계해 공공시장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다.

장성군은 육군 교육기관인 상무대와 경찰서, 교육지원청, 소방서, 농어촌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대상으로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있다.

제철과일과 가공식품, 전통주 등 총 20여종의 품목이 마련됐으며, 장성공동브랜드상품인 365생, 365품과 남도미향, 도시사품질인증상품 등 고품질의 농

특산물들을 엄선했다. 행사에는 장성군농산물가공센터운영 법인인 장성예찬과 장성천연조미료사업단, 농협연합사업단을 비롯해 여러 마을 기업들도 참여했다.

장성군 관계자는 "1만원대 상품으로는 과일잼 세트와 황금떡 세트, 포도 등을, 2만~3만원대 상품은 강정, 조정, 식혜, 전통주, 참기름, 황토소금, 삼채상품, 사과, 배, 세송이버섯 세트 등을 추천한다"며 "새싹삼, 갯감 등 4만~5만원대 상품들도 추석 선물로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장성군 공무원과 지역 소상공인연합회원 50여명은 지난 26일 군민회관에서 버스터미널까지 행진하며 장성사랑상품권 이용과 가맹점 모집을 독려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장성군 제공>

'장성사랑상품권' 지역경제 효자 노릇 기대

20억원 어치 발행 내달 5일부터 농협 등 16곳서 판매

장성군이 다음 달 5일부터 발행할 예정인 지역화폐 '장성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장성사랑상품권은 장성군이 지역 자본의 외부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군비 20억원을 들여 발행한다.

장성군은 지난 26일 발매를 앞둔 '장성사랑상품권'을 널리 알리기 위해 가두 행

진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에는 장성군 소상공인연합회와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여해 상품권 이용과 가맹점 모집을 독려해 호응을 얻었다.

장성사랑상품권은 5000원 권과 1만원 2종으로 발행되며, 1인당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상품권은 장성지역 농협과 축협 지점·출장소 등 16곳에서 판매한다. 개인이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 연중 6%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구매한도에는 제한이 없다.

장성군은 추석을 앞두고 상품권 발행을 기념해 오는 9월5일부터 10월20일까지 10% 할인행사도 진행한다.

상품권은 장성군에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가맹점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각 가정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장성사랑상품권 사용과 가맹점 모집에 많은 군민들이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야생화 수놓기 등

수공예 교육과정 운영

담양군, 내달부터 3개월간

담양군이 수공예 문화 확산을 위한 '2019년 제2기 수공예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다음 달 3일부터 3개월간 총 24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지난 17에 이어 야생화 들꽃 자수과 정으로 광목을 이용한 기본 바느질 법과 야생화 수놓기 등을 교육한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담양군 공예센터 장인각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과정은 초급반 10명, 중급반 10명으로 개별 운영하며 초급반은 매주 화요일, 중급반은 매주 목요일에 교육을 진행한다.

다음달 2일까지 선착순 20명을 모집하며 수공예에 관심이 있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재료비를 제외한 수강료는 무료다.

수강을 원하는 군민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수강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방문접수, 전자우편(da791002@korea.kr), 팩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담양=서영준 기자 xyj@

그린알로에

그린궁 홈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홈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